

실업계 고등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김 희 숙* · 이 성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시기는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정서적 불안정이나 기타 적응상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입시 및 학업성취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경쟁을 강조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좌절감, 우울, 분노, 공격성 등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감정을 더욱 더 경험하게 한다. 또한, 첨단과학 기술과 정보화 사회로 접어든 21세기 우리 사회는 무분별한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주위 가족 및 친지, 교사, 친구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Kim, 2007). 이런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 가운데서 분노는 공격행동 및 비행행동의 주요 유발인자로 여겨지고 있고 또래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Choi, 2003).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기본적인 정서 중의 하나인 분노는 분노 유발 상황에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근육긴장 및 자율신경계의 활성화를 수반하면서 경증의 초조함이나 흥분에서부터 격렬한 분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도의 주관적 감정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상태이다(Cha & Sohn, 2006). 사람들의 분노에 대한 생각은 대체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 분노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를 수치스러워하여 억제하거나 회피하려 한다.

유발된 분노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억제된다면 분노는 다른 부정적 행위나 정서로 대치될 수 있고(Sharkin, 1988), 난폭한 말씨나 행동과 같이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표현되거나 남발될 때는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 이처럼 분노의 부적절한 표현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분노를 내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학습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은 자신을 분노하게 하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믿음은 분노의 대상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우울을 유발시킨다(Seligman, 1975). 반면에 분노경험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표현하는 분노표출을 습득한 사람은 반사회적 행동 및 친밀한 관계의 파괴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러한 감정을 다루려고 한다(Kim, 2001).

청소년기에는 종종 공포, 죄의식, 분노, 혐오적인 정서 상태일 때 우울하거나 슬픈 감정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청소년의 우울 특징은 가면우울(masked depression)로 슬픔이나 낙심 등의 우울증상이 행동상의 문제를 동반하여 우유부단, 음주, 약물 사용, 집중력 저하, 극심한 무력증, 권태감, 학교성적 저하, 피로감, 두통, 복통 등의 신체증상, 가출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 등의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교신저자 김희숙 E-mail: hskim8879@knu.ac.kr)
투고일: 2008년 4월 11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5일

증후군으로 나타남으로써 진단하기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다(Lee, 1988).

이상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분노는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청소년의 분노관리는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 분노, 우울과 공격성에 대한 관계 연구는 다른 정신과적 장애에 비해 적고, 그 대상에 있어서도 대학생(Ko, 1994), 중학생(Shin, 2002)과 인문계 고등학생(Joo, 2005; Kim, 2001)이 대부분이며, 대체로 성적이 부진하거나 가정이 빈곤한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써 입학하면서부터 학교에 대한 열등감과 가정에 대한 열등감으로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있다(Lee, 1996)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노에 대한 이해나 예방적 개입은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통적 특징인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도기인 청소년 증기를 경험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낮은 학업성취로 실업계열로의 배치는 오명 부여 효과와 함께 주위의 낮은 기대수준으로 인한 대화단절, 학교 및 교우 관계의 어려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 사회적인 반응의 결과인 분노와 그 표현방식을 알아보고 우울 및 공격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봄으로써 실업계 고등학생을 위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구축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계 고등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우울, 공격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학교정신보건사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실업계 고등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우울 및 공격성 정도를 파악한다.
- 2) 실업계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방식, 우울 및 공격성 정도를 파악한다.
- 3) 실업계 고등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우울 및 공격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G시에 있는 2개교의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노표현방식 우울 및 공격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6년 10월 1일부터 2006년 12월 18일까지 일개 중소도시인 G시 2개의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중 사전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406명 중 미 응답자 34명을 제외한 372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분노표현방식

분노는 자기 요구의 실현을 부정 및 저지하는 것에 대한 저항의 결과 생기는 정서로 본 연구에서 분노표현방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Spielberger(1988)가 개발한 '분노표현척도검사' 도구로 분노경험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를 측정하는 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노표현방식은 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조절을 측정하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방식을 측정하는 24문항만을 발췌하여 사용한 Kim(1997)의 수정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은 각각 8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1점 '전혀 아니다'에서 4점 '아주 그렇다'의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분노표현방식 검사 전체 신뢰도는 Kim(1997)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9$ 이고, 각 하위영역별로는 분노억압 .77, 분노표출 .77, 분노조절 .77이었다.

2) 우울

우울은 정상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우울상태까지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심, 침울함, 무력감, 무가치감, 상실감을 나타내는 정서 상태이며 본 연구에서는 Beck(1967)이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1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Lee와 Song(1991)이 번안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우울증상에 따라 기술되어진 4개의 문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된 각 문항은 0~3점 척도로 채점된 것이다. 총점은 0점에서 63점까지로 0~9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은 가벼운 우울상태, 16~23

점은 보통 정도의 우울 상태, 24~63점은 심한 우울 상태로 분류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함을 나타낸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Lee와 Song의 연구(1991)에서는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3) 공격성

공격성은 육체적인 타격이나 악의를 품은 발언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행위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욕구 내지는 경향으로 본 연구에서는 Buss와 Durkee(1957)가 제작한 공격성 검사(BDHI: Buss & Durkee Hostility Inventory)를 Noh(1983)가 번안하고 수정한 8가지 하위요인 7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 중 폭행, 간접공격, 부정성, 흥분성, 언어공격 5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48개 문항을 채택하여 진위형으로 되어 있는 문항들을 5점 척도로 바꾸어서 사용한 Shin(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Shin(1997)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는 .86이고, 하위요인 각각의 신뢰도는 폭행 .82, 간접공격 .80, 부정성 .79, 흥분성 .76, 언어공격 .78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06년 10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였으며 대상자는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의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2개의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서 학교의 동의를 얻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연구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한 뒤 연구 참여를 수락한 학생들에게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으며 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5. 자료분석방법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dow Version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분노표현방식, 우울과 공격성 정도는 최대값, 최소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방식, 우울과 공격성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분노표현방식, 우울과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72)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340	91.4
	Female	32	8.6
Religion	Buddhism	101	27.1
	Protestant	61	16.4
	Catholic	13	3.5
	No religion	190	51.1
	Others	7	1.9
Home economic state	High	11	3.0
	Average	255	68.5
	Poor	106	28.5
Birth order	1st	183	49.2
	2nd	155	41.7
	Over 3rd	34	9.1
Living arrangement	Living with parent	271	72.8
	Living with one's lone mother or one's lone father	52	14.0
	Living with grandparent and parent	31	8.3
	Living with grandparent and one's lone mother or grandparents and one's lone father	11	3.0
	Others	7	1.9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분포에서 성별로는 남자 91.4%, 여자 8.6%였으며 종교는 무교가 51.1%로 제일 많았으며 가정 경제 상태는 중이 68.5%로 가장 많았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49.2%로 제일 많았고, 가족동거형태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72.8%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분노표현방식, 우울 및 공격성 정도

분노표현방식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분노억압 16.91, 분노표출 15.00, 분노조절은 19.67로 나타났고, 우울 평균점수는 9.89이었다. 공격성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폭행 28.48, 간접적 공격성 19.88, 부정성 17.20, 흥분성 31.71, 언어적 공격성 38.52로 나타났으며, 공격성 전체의 평균점수는 135.78로 나타났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방식, 우울 및 공격

성별에 따라서는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인 분노조절 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1.99, p<.05$),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간접적 공격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03, p<.05$). 경제 상태에 따른 차이에서는 경제 상태가 하인 그룹이 분노억압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F=4.38, p<.05$) 경제 상태가 중인 그룹이 분노조절행동을 가장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F=4.90, p<.01$). 우울은 경제 상태가 하인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F=9.77, p<.001$),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간접적 공격성에서는 경제 상태가 하인 그룹이 중인 그룹보다 간접적 공격성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었다($F=3.40, p<.05$) (Table 3).

4.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 중 분노억압행동은 분노표출($r=.27, p<.001$), 분노조절($r=.22, p<.001$), 우울

<Table 2> Degree of Anger Expression Mode, Depression and Aggression (N=372)

Variables	Min	Max	M	SD	
Anger expression mode	Anger-in	8	32	16.91	3.49
	Anger-out	8	32	15.00	3.88
	Anger-control	9	32	19.67	3.49
Depression	0	63	9.89	8.03	
Aggression	Assault	11	49	28.48	6.73
	Indirect	8	38	19.88	5.22
	Negative	6	28	17.20	4.22
	Irritability	13	50	31.71	6.00
	Verbal	16	59	38.52	6.41
	Total	71	214	135.78	22.51

<Table 3> Anger Expression Mode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Anger expression mode						Depression	
	Anger-in		Anger-out		Anger-control		M±SD	t/F
	M±SD	t/F	M±SD	t/F	M±SD	t/F		
Gender	Male(n=340)	16.86±3.54	-.95	14.96±3.90	-.62	19.78±3.52	9.98±8.16	.75
	Female(n=32)	17.47±2.87		15.41±3.65		18.50±2.89		
Birth order	1st(n=183)	16.87±3.42		14.92±4.05		19.59±3.40	9.98±8.01	
	2nd(n=155)	16.81±3.63	0.66	15.03±3.65	0.10	19.94±3.55	9.48±7.28	0.67
	Over 3rd(n=34)	17.56±3.27		15.24±4.05		18.85±3.61	11.21±10.99	
Home economic state	High(n=11)	16.00±2.57ab		14.55±3.83		19.55±3.83ab	6.18±2.56a	
	Average(n=255)	16.61±3.42a	4.38*	14.73±3.53	2.32	20.04±3.32b	8.90±6.77a	9.77***
	Poor(n=106)	17.74±3.61b		15.68±4.58		18.79±3.71a	12.64±10.23b	

* P < .05, ** P < .01, *** P < .001, a < b

(Table 3) Agg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Aggression												
	Assault		Indirect		Negative		Irritability		Verbal		Total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Gender	Male(n=340)	28.60± 6.80	1.16	19.71±5.28	-2.03*	17.26±4.19	.89	31.56±5.96	-1.58	38.64±6.42	1.26	135.77±22.43	-.02
	Female(n=32)	27.16± 5.83		21.66±4.16		16.56±4.57		33.31±6.25		37.16±6.35		135.84±23.74	
Birth order	1st(n=183)	28.31± 6.97		20.01±5.35		17.15±4.11		31.90±5.83		38.46±6.47		135.83±23.21	
	2nd(n=155)	28.33± 6.56	1.00	19.71±5.20	0.14	17.13±4.42	0.37	31.37±6.19	0.47	38.41±6.23	0.28	134.95±21.99	0.51
	Over 3rd(n=34)	30.03± 6.08		19.91±4.71		17.79±3.95		32.24±6.06		39.29±7.08		139.26±21.30	
Home economic state	High(n=11)	29.09±10.07		20.09±8.4ab		16.82±4.05		31.36±7.84		37.73±6.65		135.09±30.07	
	Average(n=255)	28.24± 6.78	0.52	19.41±4.95a	3.40*	17.05±4.23	0.64	31.63±6.17	0.12	38.38±6.65	0.34	134.72±22.98	1.01
	Poor(n=106)	28.99± 6.22		20.97±5.33b		17.58±4.23		31.94±5.39		38.92±5.82		138.41±20.41	

* P < .05, ** P < .01, *** P < .001, a < b

($r = .40, p < .001$), 간접공격($r = .27, p < .001$), 부정성($r = .26, p < .001$), 흥분성($r = .20, p < .001$), 공격성 전체($r = .21,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표출행동은 우울($r = .41, p < .001$), 폭행($r = .46, p < .001$), 간접공격($r = .59, p < .001$), 부정성($r = .34, p < .001$), 흥분성($r = .46, p < .001$), 언어공격($r = .43, p < .001$), 공격성 전체($r = .58, p < .001$), 즉 공격성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노조절행동은 간접공격($r = -.13, p < .01$), 흥분성($r = -.19,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공격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r = .31, p < .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공격성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보면 폭행($r = .19, p < .001$), 간접공격($r = .32, p < .001$), 부정성($r = .22, p < .001$), 흥분성($r = .34, p < .001$), 언어공격($r = .16, p < .01$)으로 공격성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

이 있었다(Table 4).

IV. 논 의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분노표현방식 하위 척도별 평균 점수는 분노억압 16.91, 분노표출 15.00, 분노조절 19.67로 Joo(2005)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분노억압 17.16, 분노표출 15.61, 분노조절 19.44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 정도는 평균 9.89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사춘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ang, Cho, Song과 Kang(2004)의 연구에서 보고된 12.48,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Huh(2000)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11.32 보다 비교적 우울 정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Kim(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실업계 학생들이 현재 자신이 실업계 학생으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N=372)

Variables	Anger expression mode				Aggression						
		Anger	Anger	Anger	Depression	Assault	Indirect	Negative	Irritability	Verbal	Total
		-in	-out	-control							
Anger expression mode	Anger-in	1.00									
	Anger-out	.27***	1.00								
	Anger-control	.22***	-.07	1.00							
Depression		.40***	.41***	-.06	1.00						
Aggression	Assault	.09	.46***	-.06	.19***	1.00					
	Indirect aggression	.27***	.59***	-.13**	.32***	.45***	1.00				
	Negative	.26***	.34***	.01	.22***	.49***	.43***	1.00			
	Irritability	.20***	.46***	-.19***	.34***	.56***	.54***	.52***	1.00		
	Verbal aggression	.06	.43***	.00	.16**	.59***	.47***	.56***	.56***	1.00	
Total	.21***	.58***	-.10	.31***	.81***	.73***	.73***	.82***	.82***	1.00	

** P < .01, *** P < .001

로 차지하고 있는 낮은 위치와 장래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자신에게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문계 학생들보다 학교교육 경험에 대해 큰 만족을 표시한다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위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고 학교의 정규수업 시간이 인문계보다 짧으며 과외의 부담이 적고 자유로운 시간이 많은 것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공격성의 정도는 전체 점수가 135.78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Joo(2005)의 연구에서 보고된 145.8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Jeong(2003)의 연구에서 남학생 152.34, 여학생 146.16의 결과들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들은 실업계 고등학생이며 남학생이 거의 대부분임을 고려해 볼 때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비주장적인 공격적 행동으로 욕구불만을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견해들(Moon, 2005; Kwon, 2000)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Kim(1999)의 연구에서 교사나 주위로 부터의 낮은 기대감과 낮은 자아개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추후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생의 공격성 정도 및 그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고려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 분노조절행동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노억제나 분노표출행동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학생이 오히려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충동적이고 분노표현 또한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Joo(2005)의 연구에서나 초등학교 5, 6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Lee의 연구(2005)에서도 분노표출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왔으며 다른 영역은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도 이런 일반적인 견해를 수용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점의 첫째 이유는 대상자의 성별 구성이 편중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 중 남학생이 91.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학생 표본의 대표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둘째 이유는 변화하고 있는 성별 개념 및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적절

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보다는 인내하고 내색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으나 현대 사회는 정확한 자신에 대한 표현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경향과 함께 남성상에 대해서도 과격함과 박력보다는 부드럽고 섬세하며 자상한 남성상이 선호되고 있는 경향을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를 변화해가는 현대의 성적 이미지 및 역할과도 결부시켜 해석해 볼 만하다.

경제 상태에 따라서는 하인 그룹이 중 그룹보다 분노억압을 많이 하며, 우울이나 공격성 하위영역 중 간접 공격성의 정도도 높게 나왔다. 이는 경제수준이 낮은 빈곤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단순한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좌절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고(Ducan & Brooks-Gunn, 1998), 빈곤에서 기인한 여러 물리적, 정서적 환경들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Wie, 2005)을 수용하는 결과이며, 자신의 분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함으로써 정신건강에 해가 됨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특히 빈곤층 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우선적인 연구 및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분노표현방식, 우울 및 공격성과의 상관관계에서 먼저 분노표현방식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분노억압행동과 분노표출행동은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0, p<.001, r=.41, p<.001$). 이는 분노억압행동과 분노표출행동이 많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난다는 Joo의 연구(2005)와 유사한 결과이며, 분노표출과 우울과는 정적 상관이 있다는 Kim의 연구(2001)와도 부분적인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즉, 분노억압을 많이 할수록 우울도 높지만 분노표출을 많이 하는 경우도 우울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남으로써 적개심과 공격성, 분노를 표출하면 죄의식이 유발되고 그 죄의식 때문에 우울이 생기게 된다는 Freud의 이론(1957)과도 일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가면우울(masked depression)이론, 즉 슬픔이나 낙심 등의 우울증상이 행동상의 문제인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 등의 증후군으로 나타남으로써 진단하기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문제로 오인되기도 한다는 주장(Lee, 1988)과도 일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표현 방식 및 행동 저변에 깔린 그들의 정서 상태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찰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분노표현방식과 공격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노억압행동은 공격성 전체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1, p<.001$), 공격성 하위영역 중 간접 공

격, 부정성, 흥분성($r=.27, p<.001, r=.26, p<.001, r=.20, p<.001$)과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억압행동이 많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고 공격성의 모든 하위영역이 분노억압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Joo의 연구(2005)와 부분적인 일치를 보이고 있어,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공격성도 증가하며, 직접적인 공격 행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공격을 표현하거나 이를 부정하고 흥분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분노표출행동은 공격성 전체와 정적 상관관계($r=.58, p<.001$)가 있으며, 공격성의 모든 하위영역과도 정상관관계($r=.46, .59, .34, .46, .43, p<.001$)를 나타내었다. 이는 Joo(2005)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며, 분노표출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도 높다는 연구(Kim, 2001; Shin, 2002)와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노표출행동이 많을수록 공격성 수준도 높다는 결과는 Bandura(1973)의 공격성의 사회학습이론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는 분노를 외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학습한 사람은 이전에 계속해서 이런 표현양식에 대해 긍정적인 강화를 받았을 것이고 이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고무된다는 것이다. 분노조절행동은 공격성 하위인 중 간접공격($r=-.13, p<.01$), 흥분성($r=-.19,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분노조절을 잘할수록 간접공격성과 흥분하는 경향이 덜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노의 표현에 있어서 무조건 밖으로 표출한다거나 아니면 내적으로 억압하는 모두가 결국 공격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 내에서 분노라는 감정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이 공격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며 이것이 곧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울과 공격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격성 전체($r=.31, p<.001$) 및 공격성의 모든 하위영역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19, p<.001, .32, p<.001, .22, p<.001, .34, p<.001, .16, p<.01, .31, p<.001$). 이는 Joo(2005)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였으며, 우울정도가 심할수록 공격성 경향도 강하다는 연구(Kim, 2001)와도 같은 맥락을 나타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울과 공격성은 서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우울과 공격성이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입증해줌으로써 청소년의

공격성에 깔린 내면의 우울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항상 인지하고 청소년들을 지도해야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시의 2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고등학생 372명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우울, 공격성 정도를 규명하고 그 관계를 파악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분노표현방식 하위척도별 평균점수는 분노억압 16.91, 분노표출 15.00, 분노조절은 19.67로 나타났고, 우울 평균점수는 9.89이었다. 공격성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폭행 28.48, 간접적 공격성 19.88, 부정성 17.20, 흥분성 31.71, 언어적 공격성 38.52였으며 공격성 전체의 평균점수는 135.78로 나타났다.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영역인 분노조절행동에서 성별과 경제적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분노억압에서는 경제적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은 경제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공격성의 하위영역 중 간접공격성에서 성별과 경제 상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분노표현방식에 따른 우울과 공격성의 상관관계에서는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영역 중 분노억압행동은 우울, 간접공격, 부정성, 흥분성, 공격성 전체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분노표출행동은 우울, 폭행, 간접공격, 부정성, 흥분성, 언어공격, 공격성 전체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분노조절행동은 간접공격, 흥분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공격성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에서는 폭행, 간접공격, 부정성, 흥분성, 언어공격 등 공격성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생 1학년만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실업계 학생들에게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상의 연구에서 나타난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생들과 분노표현방식은 유사하나 우울과 공격성 정도가 낮았던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비주장적인 공격적 행동으로 욕구불만을 표시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다소 감소시킴으로써 실업계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인문계 고등학생과 비교하여 우울과 공격성이 낮았던 점에 대해서는 추후 비교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분노표현방

식 중 분노억압과 분노표출은 우울과 공격성과 관련이 있고 우울은 공격성과 관계가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의 우울,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분노 표현방식의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4), 343-349.
- Cha, B. K., & Sohn, J. N. (2006). Stress, anger, anger expression and depression between battered women and non batter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5(2), 187-196.
- Choi, H. S. (2003).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anger-control program: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anger-control program for the child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Ducan, G. J., & Brooks-Gunn, J. (1998). Welfare's new rules: A pox on children. *Issues Science Technology*, 14(2), 67-72.
- Freud, S. (1957).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21, 64-74.
- Jeong, K. T. (2003).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tress influence to adolescent aggressivenes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2(2), 151-162.
- Joo, J. Y. (2005).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anger expression mode,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Kang, E. S., Cho, H. S., Song, Y. S., & Kang, S. N. (2004). Relationship of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spiritual well-being of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3(2), 190-199.
- Kim, B. Y. (1997). *The effect of the anger-control program on reduction of maladaptive children's anger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 Kim, Y. J. (1999). *A study on the propensity to depression affecting to adolescent's problem behaviou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M. R. (2001). *The effects of anger levers and anger expression modes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Daegu.
- Kim, H. S. (2007).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applied MMTIC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ublic Health Nursing*, 21(1), 85-94.
- Kim, Y. H., & Huh, Y. R. (2000). The study on the experience of substance abuse, anxiety and depress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9(4), 631-649.
- Kim, Y. S. (1999). *The study of the socialization of the academic and vocational track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o, Y. I. (1994). *The college student's anger expression modes in relation to depression and agg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Kwon, S. S. (2000).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strengthening of*

- the adjustment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e, H. Y. (1988). Psychiatric(Special). Je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Kwangju.
- Lee, J. Y. (2005).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perfectionism, stress managing behavior and anger ex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S. M. (1996). *The effects of self-acceptance program for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e, Y. H., & Song, J. Y. (1991).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98-113.
- Moon, S. H. (2005). *The effects of assertive training for reduction of aggressive behavior on reduction of student's aggressive behavior in industrial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Noh, A. Y. (1983). *The effects of assertive training on the reduction of aggression and anxiety in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W. H. Freeman.
- Sharkin, B. S. (1988). The measurement and treatment of client ange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8). 361-365.
- Shin, J. W. (199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the child's propensity to hostility and moral judgement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Seoul.
- Shin, J. H. (2002). *The effect of anger levels and anger expression modes on anxiety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middle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Spielberger, C. D. (1988).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Wie, H. (2005).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tress for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4*(2), 129-138.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Anger Expression Mode,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Kim, Hee Sook* · Lee, Sung He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anger expression mode,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nd to preview a method to help adolescents who have the tendency of anger, depression or aggression tendency in community mental health situation.

Method: In order to get the data by self-reporting questionnaire, 372 subjects were selected from Oct. 1, 2006 to Dec. 18, 2006.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Spielberger's Anger Expression Scale, Beck's Depression Scale, and Buss & Durkee's Aggression Scale. The dada was analyzed b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the SPSS 12.0 program.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nger-in and depression, and between anger-in and aggression. Also there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nger-out and depression, and between anger-out and aggression. There was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aggressio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rategy to decrease depression and

aggression, and to increase positive anger expression mode for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Anger, expression, Depression, Aggression